

반려견과 함께하는 축제 '대성황'

입실 의견문화제, 관광객 2만여명 참여 속 큰 호응 얻어

전국 애견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반려견들의 축제의 장인 입실군 의견문화제가 2만여명에 달하는 관광객의 참여로 대성황을 이뤘다.

8일 입실군에 따르면 어린이 날을 전후해 4일부터 7일까지 의로운 개의 고향 입실군 오수면 일원에서 개최된 '제33회 의견문화제'에 전국에서 2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견문화도시로 각광을 받았다.

군은 4일간 '해견과 함께하는 2판판'이라는 주제로 의견문화제를 열고, 주인의 목숨을 구하는 데 헌신한 오수개의 정신을 알리며 전국 애견인들의 만남의 장을 열었다.

이번 축제에는 전주기전대학교 애완동물 관리학과와 전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 서울 호서대학교 애완동물학과와 각종 애견견습, 동물병원 등이 참여함으로써 의견문화제가 명실상부한 반려견 산업의 체험 및 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대학과 업체가 함께 마련한 반려견 체험홍보행사에서는 전국각지에서 방문한 반려견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애견무료이용, 애견옷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한 '의견성지'로 가는 코레일 애견열차'를 통해 의견문화제에 방문한 300여명의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경운기 50여대에 반려견과 함께 진행한 '개나 무골 오수 동네 한바퀴 퍼레이드'로



전국 애견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반려견들의 축제의 장인 의견문화제가 열렸다.

시작부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퍼레이드는 1km가 넘는 장사진을 이루며 원동산 공원의 신비한 의견비 탐방과 반려견과 함께 의견비 세바퀴를 돌면 반려견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산다는 전설 속 의견비 각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의견문화제 기념식과 더불어 MBC 두시만세 공개방송으로 치러진 의견가요제, 전국 그레이하운드 경주대회는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너랑나랑 운동회, 전국 반려견 콘서트, 스탬프 공공캘리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축제에 재미를 더했다.

전국 반려견 동호인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들을 위한 '파티파티 칭찬 파티'는 인디공연, 버스킹, DJ와 함께 하는 치맥파티를 열어 저녁 프로그램의 열기는 뜨거웠다.

올해 의견문화제는 지사면과 삼계면 오수면의 각 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진행돼 만족도가 높았다.

더불어 지난 4월 국회에서 오수의견 특구조성 정책토론회에 이어 의로운개를 상징하는 오수지역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애완동물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자는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심 민 군수는 "반려견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열리는 의견문화제는 전국 애견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오수를 대한민국 대표 애견문화도시로 각인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며 "입실문화의 상징 오수개 정신을 계승하고 바람직한 애견문화를 조성하며 우리나라 반려견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입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실=진홍영 기자



해군사관생도의 꿈 현장에서 키운다

순창군, 육천인재속 입사생 140여명 사관학교 견학

순창군 육천인재속 입사생들이 최근 진해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해군사관생도의 꿈을 키웠다.

이날 견학에는 육천인재속 중, 고, 고2 입사생 140여명이 참여했으며 실제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사관생도들의 생활모습과 학제 등을 보고 생동감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해사 견학은 학년별로 나눠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거북선, 해사관도 등을 견학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처럼 생활터전이자 국가번영의 통로인 바다를 지키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하는 해군사관학교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견학에 참여한 순창고 2학년 김모 학생은 "해군사관학교에 직접 와서 시설과 사관생도들의

생활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한번 꼭 이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표했다.

그동안 육천인재속은 바람직한 국가관을 갖춘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사관반을 운영하며 2015년도 육군사관학교, 2016년도 공군사관학교 견학을 실시했고 올해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선배 초청 입시설명회 개최, 해군사관학교 견학, 특강, 모의고사 등을 통해 실질적 성장을 키워가고 있다.

또 올해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육천인재속 기숙동 증축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로 고2 입사생 대상 입시설명회를 시행해 조기 진로 선택 및 입시 전략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올해 4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남해 및 서해 일부 지역 해수에서 3~4월에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해수에서 상온하고 해수온도가 18°C이상 될 때 균의 활성도가 높아지며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 혹은 덜 익은 상태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해수가 상처를 통해 침입해 발생하게 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만성간질환자(만성간염, 간암, 간경화 등), AIDS 등 면역저하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비닷물과 접촉하지 말고 어패류는 5°C이하로 보관하며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85°C이상 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입실군,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

입실군이 여름철 폭염대비를 위해 경로당에 에어컨을 추가설치하고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 추진에 팔을 걷었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105개소의 무더위 쉼터 외에 총 3억여원을 투입해 경로당 155개소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무더위쉼터를 26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쉼터 입간판 설치, 냉방용품 비치 등 폭염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월 중 설치 및 점검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까지 철저한 폭염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주민행동요령 교육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40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한 군은 주민홍보 및 무더위 쉼터의 효율적 활용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입실=진홍영 기자

슬레이트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남원시,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석면안전 관리법에 의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남원시에서 2013년부터 국비 등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1,000여 동을 철거한 바 있다.

작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올해부터는 남원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남원시는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지붕으로부터 주민 안전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철거 신청서를 금년초부터 각 읍면동을 통하여 접수한 바 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 534백만원을 확보 각 읍면동을 통하여 접수된 220여 개소(23,000여㎡)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직접업체를

선정 5월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엔 환경과장 겸년초부터 각 읍면동을 통하여 접수한 바 있다. 슬레이트 문제는 분인과 가족, 주변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주택소유자 등 철거신청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가정의달 맞아 그림책 원화 전시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절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림책 원화 전시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정비 출판사의 후원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 2016년도 후보에 오른 권윤덕 작가의 베스트셀러 대표작 '시리동동 거미동동'이다. 제주도 특유의 꼬리따기 노래 '시리동동 거미동동'을 작가가 재해석하여 재해석한 이번 그림책은 해녀인 엄마를 기다리는 소녀의 하루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특히 까만 돌담의 거미에서 출발하여 토끼, 까마귀, 바위, 하늘, 바다 등으로 이어지는 맛깔스러운 꼬리따기 노래를 통해 엄마를 기다리는 소녀의 마음을 담담히 담아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에는 책의 그림책 오디오북을 비치해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과 저시력 노인 등 정보 소외 계층도 책을 천천히 읽어보며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서관 내에서도 이용 가능한 '시리동동 거미동동' 그림책 오디오 북 서비스는 도서관 아동자료실에서 대출 가능하며 전시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순창군립도서관 1층 로비 전시공간에서 열린다.

군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그림책 원화를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며 "많은 군민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자료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은 휴관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의 참종다

순창군 귀농·귀촌 상담전화
063)650-5172~5174

순창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www.gosunchang.com

귀농·귀촌 최적지 순창
순창이 참종다!
순창 귀농은 더 좋다!